

# 7

## 재치 있는 말

◆ 인물이 한 말의 의도를 짐작해 봅시다.



그림을 보고 도련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.

우리 집 감을 왜 너희가 따 가느냐?



우리 집 담장으로 넘어온 감이니 당연히 우리 거지!

뭐라고?  
음…….



도련님! 옆집 하인들이 감나무 가지가 자기네 집으로 넘어갔다고 그 감이 자기네 거래요.

그야 당연히 네 주먹이지.



대감마님, 이것이 누구의 주먹입니까?

아니, 어떤 녀석이 남의 방에 주먹을 들이미느냐!



## 닭을 빌려 타고 가지

김 선비는 농담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김 선비에게는 매우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멀리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.

어느 날, 김 선비는 멀리 사는 친구가 보고 싶어 말을 타고 찾아왔습니다.

“그동안 잘 지냈나? 자네가 보고 싶어 말을 바빠 달려 찾아왔다네!”

“여보게, 어떤 일인가? 이리 반가울 수가!”

친구는 김 선비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

김 선비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농담을 실컷 풀어놓았습니다. 친구는 그런 김 선비의 농담을 들으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.

서로 신나게 떠드는 사이 밥상이 들어왔습니다.

그런데 밥상에는 나물 반찬만 있었습니다. 친구가 김 선비의 표정을 힐끗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미안하네. 내 살림살이가 가난하고 시장은 멀어 나물 반찬만 차렸네.”

그때 닭들이 마당 여기저기에서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. 김 선비는 괜찮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.

“괜찮네! 선비는 천금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 고기반찬을 만들면 되네.”

그 말을 들은 친구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.

“아니. 말을 잡으면 돌아갈 때 무엇을 타고 가려고?”

“저 마당에 있는 닭을 빌려 타고 가지.”

김 선비의 말을 들은 친구는 크게 웃으며 닭을 잡아 김 선비에게 대접했습니다.



## 내 집 문짝도 넘어지려 한다



옛날 어느 마을에 사또가 있었습니다. 사또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성격이 몹시 사나웠습니다. 사또는 아내에게 꼼짝도 못 하고 살았습니다.

어느 날, 마을의 한 노인이 사또에게 찾아와 화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.

“사또,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우리 마을 대장장이 아내의 성질이 못되기가 둘째가면 서러워한다는데, 글썄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! 당장 데려다 벌을 주시지요.”

이 말을 들은 사또는 자기 또한 비슷한 처지라 대장장이의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어졌습니다.

“여봐라. 대장장과 아내를 당장 데리고 오너라!”

대장장과 아내는 사또 앞에 불러 왔고, 이 광경을 보려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.

“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고 살아야 하거늘 어찌 이런 잘못을 저질렀느냐?” 아내의 눈치를 살피던 대장장이가 손사래를 치며 사또에게 말하였습니다.

“사또, 아닙니다. 제 얼굴의 상처는 아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 문짝이 넘어져서 긁힌 것입니다.”

“뭐라고? 그 말이 거짓이면 너에게도 벌을 내리겠다!”

이때 갑자기 사또의 아내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.

“여보! 우리 마을에 도둑도 있고,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집 일에 간섭이나 하오?”

아내를 본 사또는 고양이를 본 쥐처럼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.

“내 집 문짝도 곧 넘어지려 하니 모두 빨리 돌아가시오.”





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1 김 선비가 멀리 사는 친구를 찾아간 까닭은 무엇인가요?

2 점심 밥상을 본 김 선비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?

3 사또가 대장장이 부부를 데리고 온 까닭은 무엇인가요?

2 김 선비와 사또가 다음과 같이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써 봅시다.



저 마당에 있는 닭을 빌려 타고 가지.

내 집 문짝도 넘어지려 하니 모두 빨리 돌아가시오.



3 글을 읽고 마크 트웨인이 이웃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.

마크 트웨인은 『톰 소녀의 모험』, 『왕자와 거지』 등을 쓴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. 그는 청년 시절에 신문사 인쇄공으로 일하며 신문 기자 일을 배우고 유머나 콩트를 써서 신문에 실기도 했습니다. 마크 트웨인은 유머를 매우 좋아하였고,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익살스러운 표현을 잘하기로도 이름난 사람입니다.

다음 두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이 익살스러운 표현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.

1 마크 트웨인이 어느 시골로 강연 갔을 때의 일입니다. 수염이 많이 자라 강연 전에 면도하려고 이발소에 들렀습니다.



2 마크 트웨인이 책을 빌리려고 이웃집에 갔습니다. 이웃 사람은 마크 트웨인에게 유머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.

“빌려드리고 말고요. 얼마든지 보십시오.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여기서 보시라는 겁니다. 절대로 책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로 했거든요.” 며칠 뒤, 그 이웃이 마크 트웨인에게 잔디 깎는 기계를 빌리러 왔다. 익살꾼 트웨인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.

● 유머: 익살스럽게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    ● 콩트: 유머가 들어 있는 짧은 이야기

4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.

보기 손사래 천금 

• 많은 돈이나 비싼 값:

• 어떤 말이 아니라는 뜻으로 손을 휘젓는 일:

5 다음 상황에서 친구에게 어떤 재치 있는 말을 할지 생각해 봅시다.



친구의 새 자전거를 타 보고 싶다.

---



친구에게 과자를 나누어 달라고 하고 싶다.

---



● 인물이 어떤 말을 했는지 짐작해 보았나요?

